

2012.6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2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2.6.26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3명) 명단: 오덕성, 유덕순, 송인덕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종국 사장, 강덕원 경영기획국장, 김종찬 프로그램제작부장, 임양재 보도국장, 정갑관 기술국장, 정종건 기획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3	3	8	-	3	14	-	17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5	10	2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2건	2건	
기타	특정 여자 아나운서 프로그램 비중 많아 건강 우려	특정 여자 아나운서 역할 줄이고 다른 1명 프리랜서 아나운서 보강하여 투입함	5월
보도	안영동 농수산물센터 문제 취재 필요	농수산물센터 취재 방송함	5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전세버스 위험한 질주”에서 대형버스 업체의 횡포를 지적하고 있다. 방송 이후 버스업체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측면에서 어떠한지 후속취재가 있으면 한다(박희원).	전세버스 문제는 전국적 이슈가 된 우리지역의 문제로서 신속하게 취재 방송을 하였다.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의견참고
방송 편성	대전MBC에서의 스포츠 중계가 너무 적다. 스포츠중계에 방송편성시간을 보다 많이 할당해보자. 시골에서는 케이블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중계를 통하여 대전MBC의 위상을 확장시킬 수 있다(박희원).	먼저 라디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프로야구 라디오 중계는 이미 기획되어 있는 바 파업종료 되는 시점에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수용
보도	파업여파로 뉴스의 방송분량이 적고 기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충청권의 청주MBC, 충주MBC 뉴스를 상호교환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김영광).	여러 차례 고려했지만 청주, 충주가 더 어려운 사정이라 활용할 수 없다.	반론
교양	세종시가 7월 1일 출범한다. 인근 지역주민들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교통문제 등 민원을 야기할 만한 사안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김영광).	프로그램 제작부에서는 세종시 특집방송 7월 2일편과 특집 다큐멘터리 세종시편(6일)에 반영하여 방송나갈 것이다.	수용
보도	가뭇이 심각하다. 곧 여름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다. 이를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소재로 다룰 필요가 있다(김영광).	보도에서 가뭇과 무더위 장마관련 방송을 현재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화하겠다.	수용
교양	세종시가 7월 1일 출범하고 연말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범한다. 예산, 홍성지역 주민들은 통합문제로 내포신도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대토론회를 준비해보자(한잔희).	프로그램 제작부에서 예산·홍성 통합문제 내포신도시 문제는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다루고 있었다. 실제로 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소규모학교에 많이 온다. 이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한다. 이번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쟁점을 시리즈로 방송해 보면 어떤가?(김경숙)	교육문제는 시사플러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는 바 소외계층 소규모학교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갖겠다.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시사플러스” 프로그램은 40분에 2가지 아이 템을 다루고 있다. 2가지 아이TEM을 다루다보 니 주제 전달력이 약한 듯하다. 시간량 또는 시의성 맞는 주제의 선정 때문에 2가지 아이 TEM으로 구성을 짜고 있는가? 궁금하다(김경 숙).	2가지 아이TEM을 다룬 이유는 전 세버스문제가 시의성이 있어서 서둘러 소화하고자 했던 것이고 아이TEM 방송분량을 보니 40분 물 량이 나오지 않아 2가지를 다룬 것이다.	의견참고
방송 편성	“시사플러스”는 저녁 7시 5분에 방송이 된 다. 이 시간대가 이 프로그램이 수용자대상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대인가? 직 장인들은 거의 보지 못한다. 탐사 프로그램 치고 시간대가 너무 이르다. 방송시간대는 바뀌어야 한다(김명수).	편성문제는 지역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바 편성회의를 거쳐 검토하겠다.	의견참고
교양	건강플러스 출연진을 보면 특정대학의 병원 의사, 지정된 한의사가 고정출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출연진을 보다 다양화 시킬 필요 가 있다. 출연의사의 질병에 관한 설명시 고 정된 PT 화면이 프로그램의 역동성을 저하 시킨다. 다이나믹한 화면으로 제작을 하길 권한다(김명수).	출연진의 다양화를 피하겠다. 건강플러스의 시청층을 고려하여 화면 구성을 편안한 방향으로 만 들어 진행하겠다.	의견참고
방송 편성	주말의 뉴스데스크가 저녁 9시가 아니라 8시 에 송출이 된다. 주중에는 저녁 9시인데 주 말이라 해서 저녁 8시로 할 필요가 없다. 뉴 스방송시간대의 일관성도 없다. 다시 저녁 9 시로 환원시키자(김명수).	본사 차원의 결정 사안이라 대전 MBC에서 단독으로 결심할 문제 는 아니다. 정체성 유지차원에서 의견에 감사한다.	반론
교양	방송의 지역분권화를 기대해본다. 대전MBC 도 예능 프로그램에 “학교통폐합” 같은 주제 를 다루면서 메시지도 주고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게끔 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딱딱한 주제를 저녁 7시대에 취급하다 보니 시청률이 적게 나오지 않나 생각한다(장동 환).	아침시간대 오락성을 가미한 정 보프로그램에서 소규모 학교 통 폐합문제를 검토해보겠다.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가 지역의 아젠다를 만드는 역할 을 하고는 있지만 대전시가 갖고 있는 당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다. 이를테면 대전시장의 인사권 문제점, 엑 스포과학공원의 위락시설 유치, 관저동 유니 온스케아사업에 신세계의 참여 등 대형 이슈 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접근을 못할 까? 이 사안들은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	대전시의 대형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제작기간이 소요기간이 필요한 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작을 검토해보겠다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기하고 있다. 과급력이 큰 핵심의제에 접근해야 한다(장동환).		
기타	시사프로그램의 소재를 아이디어 공모하듯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하면 어떨까? 특히 이 지역 여론주도층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도 된다고 본다(장동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대상 공모를 더욱 활성화하겠다.	의견참고
기타	대전은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이 무척 약한 도시이다. 무질서한 도시공간이 그렇고 추억이 많은 목척교 다리도 그냥 부수고 새롭게 만든 것도 그렇고, 대전의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되길 기대해본다(장동환).	시사플러스및 타 프로그램에서도 대전의 도시미관 디자인 관련 내용을 소화하겠다.	수용
기타	지역방송사 역할은 프로그램을 지역에 더욱 밀착화 함으로써 그 가치가 빛난다.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김형주).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에 더욱 노력하겠다	의견참고
보도	보도국 뉴스의 단신을 유심히 보았다. 예전에 비해 단신 뉴스가 타 방송사보다 2, 3개가 적다. 이전에는 왕성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감이다. 지역의 단신도 지역민에게는 관심거리이다. 개선해주길 바란다(김형주).	파업으로 뉴스가 짧은데 단신을 너무 많이 처리할 수 없다.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 중심에서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	의견참고